

막 오른 정기국회… 시작부터 가시밭길

오늘부터 100일간 대장정
513조 내년 예산안 심사
선거법 처리 등 난제 산적
‘조국 전면전’에 일정 합의 못해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고 ‘법안 처리율 최저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아직 정기국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해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1일 현재 여야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시작 전 완료해야 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고, 정기국회 일정 역시 잡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3~5일 혹은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 질문, 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가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으나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단, 조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가 모두 끝나야 일정 논의가 겨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기약 없는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이인영 “조국 청문회 국민과 직접 만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둘째 주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추석 연휴가 있어 일정 잡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오는 3일 제출하는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는 진작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을 충분히 풀어 대응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을 반드시 ‘월안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정부와 민간의 관련 예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여지도 열어뒀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란히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올 연말 역시 예산안 심사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4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불러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어 다시 극심한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돼 패스트트랙 첫 관문을 넘어섰다. 국회법상 본회의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문화상 국회의장이 법안 부의 후 바로 상정하면 이 기간은 전부 줄일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의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때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내부 사정이 달라진 데다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본회의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경원 “文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발언 논란

부산 정부 규탄 집회 참가…여야 “망국적 지역감정” 비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로 있다”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부산에서 개최한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 “이정권 들어 부-울·경을 차별한다. 서울 구청장 29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20명이(출신지가) 광주·전남·전북 출신이어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로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지역감정을 덧씌우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달장’, ‘반민특위’, ‘자위대 행사 참석’, ‘홍신학원 비리’, ‘자녀 부정입

학’ 등 헤아릴 수 없는 막말과 비위로 논란의 중심에 서더니, 지역감등 조장까지 서슴지 않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광주일고 출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페이스북에서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궤변을 늘어놓는 천박한 인식과 마타도어에 차가 떨릴 지경”이라고 했다.

대안정치연대의 김정현 대변인은 “PK(부산·울산·경남)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건드렸으니 그 죄질은 내란죄에 준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시켜서라도 정신이 반쪽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시민 “억측으로 조국 위선자라는 건 헛소리”

‘봉하음악회’ 조정래와 대담…“청문회 뒤 거취 결정해도 충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3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혹 확인 과정에서 온갖 억측과 집착, 희망사항을 결합해 ‘위선자’,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봉하음악회에서 조정래 작가와의 대담 중 “조 후보자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치 않으니 팩트에 대한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론이 ‘조국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려면 먼저 팩트를 제시하고 어떤 추론을 거쳐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천박하다’, ‘위선자다’라

고 단죄해놓고 ‘조국 편 드는 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고 진영논리’라는 건 횡포이자 반지성주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대학생들도 촛불을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라며 “내 판단이 어떤 사실에 의거하고 있는가 합리적 추론을 해 결론을 내리고 확신이 있다면” 말고 촛불이든 뭐든 다 하라”고 말했다.

조 작가는 “조국은 반드시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한다”며 “그만한 인물과 정직, 맷집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 인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투쟁했는데 못한 놈들이 못해 살해한 게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철수·유승민 당 살리기 힘 합쳐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면, 보수 대통합에 관심이 없다면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분에게 가까운 분, 소통되는 분을 통해 만나고 싶다”,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다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없애지고 한국당과 통합 연대를 하면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해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으로 경제·안보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내용과 혼란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를 제안했지만, 혁신위 2주 동안 오직 지도부 교체론, 손학규 퇴진론만 갖고 이야기했고 혁신안 8개가

나왔는데 단 한 개도 논의가 안 됐다”면서 “저에게는 아직 당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사명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정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3지대 정치를 추구하는 인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앞으로 (영입 노력을)을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취임 1년 성과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부족하지만 1단계를 거쳤다는 것이 가장 크다”면서 “아쉬운 것은 당의 내용과 내분”이라고 답했다.

손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당은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를 외면하고 싸움으로만 일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조금만 단합하고, 회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김현수 농식품부장관 임명

이개호 전 장관 이임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임명 사례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공식 퇴임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적극적인 쌀 생산조정과 수확기 쌀 시장관리로 지난 가을 산지

쌀값이 19만원을 넘었고 지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는 농가 소득이 최초로 4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이 15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면서 “만족스러운 규모는 아니지만 2000년대 들어 손에 짚을 정도로 높은 증가치로, 공약형 직불 예산 2조2천억원을 정부 예산에 담아 직불제 개편의 단초를 놓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공약형 직불제 개편과 (쌀) 목표가격 결정이라는 큰 숙제를 남기게 됐다”며 “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고자 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청년대변인 4명 선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청년 대변인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청년대변인 4명을 임명한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근 청년대변인에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인 박성민씨와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장종화씨를, 비상근 청년대변인에 사단법인 ‘날아’ 운영위원장인 주흥비씨와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인 김민재 씨를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취재진에 별도 공지를

통해 “장종화 씨는 김영호 의원의 보좌진 출신이고, 장영달 전 의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씨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자신이 보좌진을 역임하고 있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다”며 “심사위원단도 심사 과정에서는 알 수 없었고, 심사 종료 후 평가 과정에서 장씨의 출신을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집 경관 최고 땅 48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에 적합, 휴게소도 적합, 32억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군 청산면 신희리 대지 440㎡ 주택 53㎡ 조용한 생활 최적합 4500만원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 4959㎡ 펜션적합 교환가능 4억5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가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종용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랑리) 6645㎡ 조망종용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양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령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입아·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인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능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신안군 암태면 부두에서 배로 10분거리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요양시설 최고 명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종속기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 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담 4413㎡ 축협 2억4천 투지에 좋음 4억4천
- 담양군 대덕면 장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음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호텔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임야

바로 삽니다

문의. 010-6834-740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자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성토지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 648-1, 2 및 38, 나대지
- 면 적 : 3,646㎡ (1,104평)
- 읍에서 5분거리
- 한 경
-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